

IBKS Spot Comment

IT/소재/부품/장비

이건재

02)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제약/바이오

정이수

02) 6915-5677

ysjeong306@ibks.com

[바이오]

미국, 중국 바이오 산업 공습 초읽기 돌입

What's New:

어제(8일) 장 후반 WSJ(Wall Street Journal)을 통해 미국 의회 산하 신홍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가 공개됨. 이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20년 간 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 왔으며 미국이 이를 3년 내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음.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향후 5년 간 최소 150억 달러(23조 원)를 바이오 연구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대규모 투자와 함께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를 신설해 바이오 산업 전략을 전담하는 지휘체계를 설립하도록 촉구함. 해당 기사 공개 이후 당일 상해종합지수 +1.58%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CDMO 기업인 **우시애펙** 주가는 **-9.73%** 급락해 중국 증시의 일일 하한가(10%)에 육박함.

Analysis:

중국은 원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공급의 주요 국가로 자리잡았으며 최근 자체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음. 2025년 1월 개최된 JP Morgan Health Care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주목할만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과거와는 다른 위상을 미국 본토에서 나타냄.

신홍 바이오 기술 국가안보위원회는 중국이 희토류와 같이 바이오 기술을 무기화하거나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의 보건, 안보, 경제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함.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Biosecure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하는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됨. 위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바이오 산업 내 중국 기업 배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 바이오 산업 내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So What?:

국내 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뉴스인 것으로 판단함. 바이오 산업 내 일본의 존재감은 미약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던 중국이 배제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확실시 되는 흐름인 것으로 보임.

중국 배제에 따른 국내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CDMO(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원료 의약품(에스티팜), 바이오 소부장(마이크로디지탈)이 주요하며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밸류에이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1. 주목해야 할 CDMO 및 소부장 대표 기업

기업명	사업분야	내용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국내 바이오 CDMO 1위 기업으로 생물보안법 논의 이후 CDO 및 CMO 문의 건수 급증하고 있어 최대 수혜 예상
에스티팜	원료의약품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저분자화합물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되며 중국 기업들을 대체하고 있어 향후 원료 공급물량 증가 기대
바이넥스	CDMO	다품종 소량 생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국내 중소형 CDMO 기업
마이크로디지탈	바이오 소부장	Parker Hannifin과의 계약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향후 기술 이전을 통한 확장성까지 확보한 국내 대표 바이오 소부장 기업

자료: IBK투자증권